“천년을 이은 차 문화 체험…몸·마음 치유”

하동 쌍계사 2024 쌍계사 차문화축전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다(茶)-디카시로 만나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 주지 지현 스님이 헌다하고 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하동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천년을 이어온 차의 역사와 전통을 보급·계승하고, 차문화 체험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2024년 차문화 대축전’을 개최했다.

행사는 5월 2일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에서 찻잎을 채취하는 개원채다 의식으로 시작됐다. 의식은 헌다, 각 나라별 의식, 고불문 낭독, 채다의 순으로 이어졌다.

5월 3일 경내 괘불전에서는 입재식과 법요식이 봉행됐다.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108 헌다, 대회사, 축사, 고려다도 시연, 두리차회 시연이 진행됐다.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족하나마 쌍계사 대중과 선다회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마련한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을 즐겁게 즐겨달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진감초의 다맥 한국선다회 이사장 영담 스님은 “지난해부터 하동 세계차문화엑스포와 함께 국제행사로 쌍계사 차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차문화를 선양하고 전통다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쌍계사 차문화대축전’은 전통불교 선(禪) 사상의 원류인 육조 혜능 대사의 선맥과 진감 국사, 초의·만허 선사의 다맥이 융화된 선다(禪茶)의 정맥을 전하는 법석”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차문화 대축전에 참여해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진우 스님은 “올해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은 차나무 시배지에 대한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천년을 이어온 차의 역사와 전통 차문화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이 미래 문화유산을 지켜갈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전통과 현대를 잇고 전통문화와 다양한 국가의 문화가 어우러지며 소통하는 축제로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치하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고산 대선사와 제 은사이신 백운 대강백께서는 초의 선사의 차 정신을 ‘선다일미(禪茶一味)’라고 하셨다”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선다일미의 차인정신 선양을 위해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이 풍성한 축제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경내 팔영루에서 22회 진감·초의·만허·고산 대선사 다맥전수식이 열렸다. 진감초의다맥한국선다회에서 시행하는 진감국사 전승선차 다도교육을 이수한 차인들이 다맥을 전수받았다.

5월 4일에는 특별 청소년프로그램 ‘茶-디카시로 만나다’가 열렸으며 쌍계사 차 시배지 답사와 사진촬영, 시 쓰기도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茶)-디카시로 만나다’와 글로벌 다국적 시대에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K-어울림 축제’를 통해 한국문화와 다양한 국가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는 축제의 시간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꾀했다.

광주 最古 축제 ‘빛고을관등회’ 개최

5월 4일, 법요식 · 연등행진 등



1300년을 이어온 광주 최고(最古) 축제인 ‘빛고을관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5월 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빛고을관등회’를 봉행했다.〈사진〉

광주의 연합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는 4월 18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광주 중요지점 4곳 점등식과 광주천에서 열리는 전통등전시회 개최에 이어 이날 어울림마당, 법요식과 연등행진, 대동한마당을 개최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빛고을 광주는 의향이요, 예향이며 부처님의 땅이다. 오늘 관등법회와 연등행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비와 평화가 가득한 고을이라는 옛사람들의 천년의 꿈을 이은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밝힌 등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밝히고, 광주시민의 마음을 밝히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자바로 화합하게 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함안불교사암聯, 군민위안 봉축연합법회

5월 4일, 아라길공원 야외공연장



함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명 스님)가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4일 함안 아라길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함안군민위안 봉축연합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원명 스님은 “내가 아닌 너도 할 수 있다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된다면 반목과 투쟁은 사라지고 극락화가 만발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부처님오신 날에 밝히는 등불은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함안불교연합회장 달전사 원명 스님, 칠보사 정광 스님, 봉불사 지정 스님, 청룡사 수암 스님, 관음사 재경 스님, 불연사 월암 스님, 동방선원 묘공 스님, 함안불교연합회스님, 함안수륙재보존회스님, 조용찬 함안불교신도회장, 허대양 함안부군수, 조만제 함안군의회부의장, 지희선 공무원불자회장, 바웃다합창단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읍 내장사 역대 조사 다례재

5월 4일, 내장사 부도전서



정읍의 명찰 내장사가 창건주 영은 대종사를 비롯해 매곡 스님, 희묵 스님 등 내장사에 주석하며 법을 펼친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내장사(주지 대원 스님)는 5월 4일 학명 스님, 매곡 스님, 희묵 스님, 석전 박한영 스님 등 조사스님들의 부도가 봉안된 부도전에서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는 헌향, 헌다, 종사영반, 회향 3배로 진행됐다.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학명 문도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과 유지를 이어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처님 시원하시죠”

각원사, 5월 9일 대불 목욕법회



천안지역 교육·수행·포교 도량인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5월 9일 개산 48주년 기념행사와 제15회 대불부처님 목욕의식 법회를 경내 아미타 청동대좌불 앞에서 봉행했다.〈사진〉

대원 스님은 “오늘 아미타대불 목욕을 시켜드리는 의미는, 하루를 살고 열흘을 살고 평생을 살면서 어두운 마음의 앙금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과 같다”며 “오늘 의식을 통해 우리 다 함께 건강하고 복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남원 만복사지 복원 청신호 켜졌다

남원시, 관통도로 폐도 추진
발굴조사사업 등 정비 본격화


남원시가 관통도로 폐도사업을 추친하고 있다. 사진=남원시청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당시 왜군에 의해 소실된 남원 만복사지가 복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남원시는 만복사지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폐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적의 경관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남원 만복사지는 고려 문종(1046~1083)시기에 건립된 사찰로 김시습의 한문소설 〈금오신화〉 소설 중 하나인 〈만복사저포기〉의 무대이다. 석조여래입상을 비롯한 보물 4점과 석조인왕상(도 지정) 등 다양한 유산이 자리한다. 당시 전각이 있던 장소에는 사찰임을 알리는 주춧돌 등도 발견됐다. 만복사지는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시 소실돼 지금까지 폐사지로 남아 있다.

그러나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로 인해 문화유산의 경관성 저해와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남원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관통도로 폐도사업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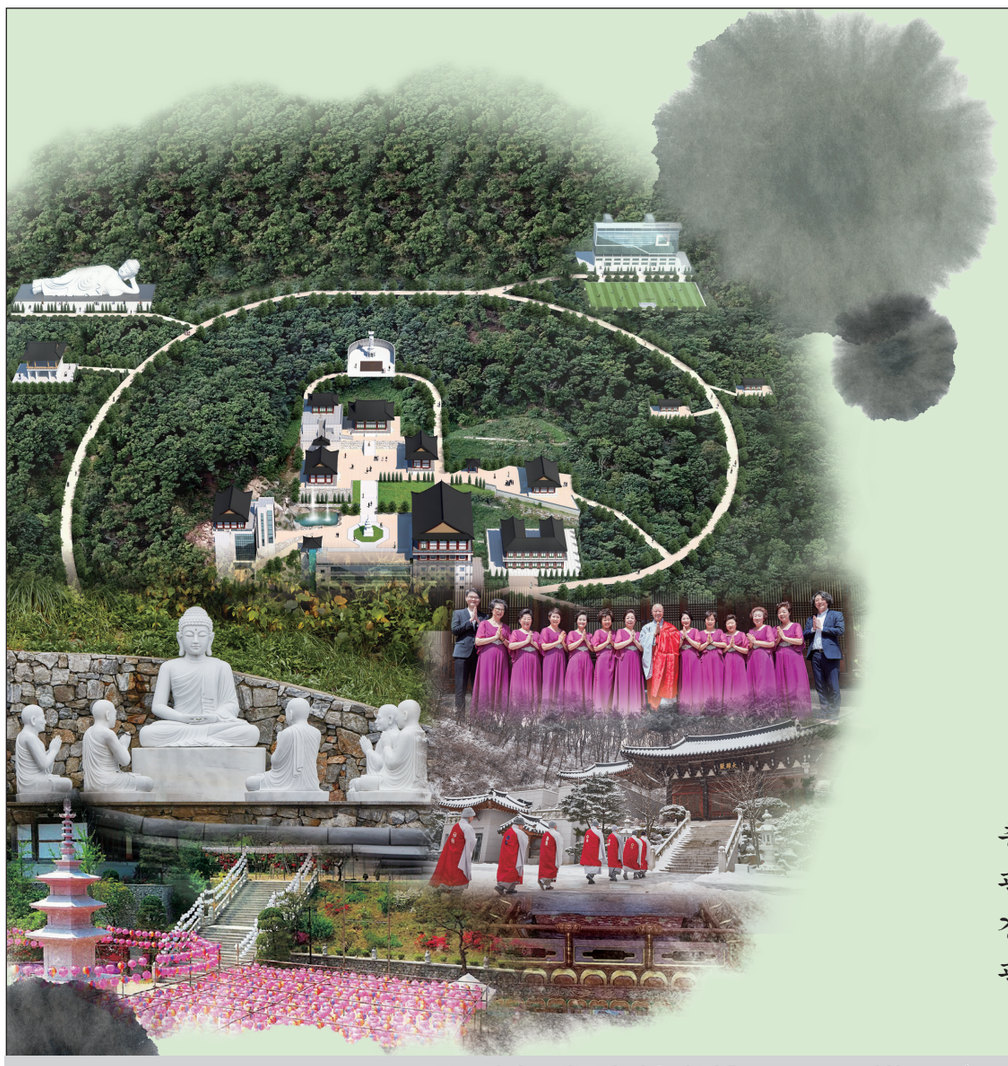
만복사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약 200년 동안 생활도로로 이용되면서 도로 하부 상·하수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매립돼 있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도로 상·하부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했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과 유적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관통도로 폐도사업은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폐도 이후 하부에 대한 발굴조사와 석인상 이전 및 보존처리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만복사지 관통도로 폐도사업은 과거 찬란했던 남원의 문화·역사를 재정립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사업이 될 것이다”며 “생활도로가 없어지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복원·정비에 협조해 주신 왕정동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역사인식 부족으로 잘못 정비된 문화유산에 대해 단계별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회 주 상 진
주지 직무대행 심 곡
총 무 무 벽 산
교 무 무 효 능
서 무 무 효 진
대 중 효 성, 일 겸,
일 월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해 경,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감 사 최인귀
법무실장 홍창수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관리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관리주임 황재훈(무영)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